

충군(忠君) 관념과 명대 동림당인(東林黨人)의 정치심리: 강요된 복종인가 자발적 의지인가?*

장현근**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동림당인(東林黨人)의 충군심리:
존군(尊君)인가 한군(限君)인가? |
| II. 충군(忠君) 관념의 형성과 발전:
강요된 복종인가 자발적 의지인가? | IV. 결론 |

| 논문요약 |

중국 고대정치사상에서 충(忠) 관념은 내적으로 마음이 공정하고 사적인 정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뜻하였는데 춘추시대를 지나면서 군주를 섬기는 덕목으로서 충군(忠君) 관념으로 재탄생되었다. 거대한 제국의 정치질서 하에서 충군은 강요된 복종에서 출발하여 자발적 의지로 바뀌어 갔다. 역대 지식인들은 도의에 입각해 군주를 섬기는 것을 대충(大忠)으로 생각하였다. 충효의 일체화와 선공후사의 논리는 자발적 충군의식을 강화하였으며 성리학을 신봉한 명대 동림당인(東林黨人)들은 자발적인 진기(盡己)의 충군심리를 지녔다. 그들의 행동과 사상은 전통적인 유가의 구세정신을 이어받았으며 존군론(尊君論)으로 일관하였다. 동림당인은 첫째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우국우민의 정신으로 무장하였으며, 둘째 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도정신과 군주에게 충성하는 충군심리가 동시에 작용하였으며, 셋째 위기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계구(戒懼)의 심리를 표출하였다. 동림당인은 군권의 지고무상을 인정하면서도 군권을 제약하려고 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엄당과

* 이 글은 필자의 「중국 고대의 충군(忠君)사상과 충효(忠孝)관념의 정치화」(『정치사상연구』 21집 2호, 2015)와 함께 2015학년도 하반기 용인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논문으로 연구되었음. 두 글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함께 읽기를 권함.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절대군권을 극복할 수 없었다. 도덕사회의 구현이라는 유가의 이상을 견지했으나 한군의 논리는 존군의 논리에 무너졌고 군권에 대한 자발적 복종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 주제어: 충군(忠君), 동림당인(東林黨人), 우국우민, 순도(殉道), 자발적 복종

I. 서론

중국 고대정치사상에서 충군 관념은 긴 과정을 거쳐 오랫동안 지식인의 정치행위를 이끌어 왔다. 처음엔 내적으로 마음이 공정하고 사적인 정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뜻하던 충 관념이 춘추시대를 지나면서 군주를 섬기는 덕목으로서 충군 관념으로 재탄생되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강요된 복종으로서 충군 관념은 중앙집권적 군주전제제도가 확립되고 불충이 나라와 가족을 버리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면서 충군은 사람됨의 기초가 되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발적 의지에 의한 충군심리가 만들어졌다. 아직도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현실을 보면 최고지도자에 대한 강한 ‘충군’심리를 발견하게 된다.

진시황 이래 제국의 정치질서는 군권의 극단적인 강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public’과 ‘common’의 조화를 통한 안정된 사회질서보다 황제 개인의 언행이 공적 표준이 되어갔다. 특히 명나라 초기 황제들의 전제정치에 대한 강렬한 요구는 구준(丘濬)의 제왕학(帝王學)을 통해 이론적 바탕이 마련되었고, 장거정(張居正)의 개혁은 오직 군권을 강화시키고 문화전제를 시행하여 의론(議論)을 통제하는 등 오직 공(公)적 질서의 확립, 즉 군주 중심의 public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군권 중심의 독재는 후유증을 드러내고 명나라 말기는 부패와 학정이 극에 달하였다. 독재의 한 축인 환관의 동창(東廠)에 대항하며 또 하나의 정치적 편견으로 기울기도 했지만, 재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동림당(東林黨)의 청의(淸議)는 황제의 왜곡된 public 중심주의에 대한 common의 정

치적 가치가 다시 강조된 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장현근 2010).

충군 혹은 동림당 관련 선행 연구는 매우 많다. 하지만 충군은 주로 한(漢)대 충군사상에 집중된 연구들(呂紅梅 2006; 曾廣開 2013; 成志芳 2015 등)이 많으며, 동림당에 대해서는 시대의 역사적 문제 일부(김종박 1981)와 정치적 평가에 관한 연구들(樊樹志 2001; 張永剛 2006; 葛荃 2001, 葛荃 2003; 劉寶樹 2004)이 많다. 동림당인의 사상과 행동을 통해 충군심리를 추적하는 글은 중국과 한국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은 동림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다루지 않는다. 『명사』의 관련 기록들과 고현성의 『경고장고(涇臯藏稿)』, 동림당 주요 인물들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는 『건곤정기집(乾坤正氣集)』 내 명대 동림당 관련 인사들의 문집을 중심으로 그들의 충군심리와 그것의 유가사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먼저 충군 관념이 전통사상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하였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강요된 복종인지 자발적 의지인지 명대 동림당인들의 정치심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천(天)과 도(道)에 대한 엄격한 자의식으로 의(義)를 추앙하는 동림당인은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군주에 대한 충성을 외쳤다. 동림당인들의 정치사상에서 존군(尊君, 군권에 대한 존중)과 한군(限君, 군권에 대한 제약)의 어느 형태로 발전해 갔는지를 추적하고, 동림당인이 보여준 충군심리의 의미와 한계를 밝히는 것은 지배와 복종의 상관관계로서 현대정치론의 논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충군(忠君) 관념의 형성과 발전: 강요된 복종인가 자발적 의지인가?

충(忠)자는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를 표시하는 깃발의 상형인 ‘中’자에다가 마음을 뜻하는 ‘心’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내적으로 마음이 공정하고 사적인 정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관념이다(장현근 2016, 458). 『좌전(左傳)』 <성공(成公) 9년>의 ‘무사(無私)’와 『논어(論語)』 <이인(里仁)>

편의 ‘일관(一貫)’이 충의 본래 의미라는 주장도 있다.¹⁾ 『서경(書經)』 <채중지명(蔡仲之命)>편엔 “너는 일찍이 앞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직 충하고 오직孝하라”²⁾라는 구절이 있다. 조상인 문왕(文王)을 본받아 왕명을 어기지 말라는 충고이다. 은주시대 왕권(王權)과 부권(父權)은 동일시된 가부장적 종법제도 하에서 충 관념은 가족윤리와 사회윤리의 한 가지였다. 춘추시대에 이르면서 충 관념은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좌전』 <환공(桓公) 6년>엔 “도(道)란 민(民)에게 충하고 신(神)에게 신(信)하는 것이다”³⁾라고 말한다. 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신에게 갖는 믿음이 ‘信’이라면 백성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忠’이다.⁴⁾ 충의 초기 관념은 사람의 내부로부터 발현되는 치우치지 않는 진심을 뜻했다(장현근 2016, 465).

춘추전국시대는 종법이라는 가부장적 봉건국가 질서체계에서 중앙집권적 군주전제국가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내면의 진심을 뜻하던 충 관념은 군주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연결되기도 했다. 특히 약간은 강요된 복종인 경(敬)의 관점으로 충을 보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가족 내의 자발적 의지인 효와 구분하기도 한다. 『국어(國語)』 <진어(晉語) 4>엔 “敬으로 군주를 섬기고, 孝로 부모를 섬긴다”⁵⁾라고 하고 『좌전』 <희공(僖公) 5년>엔 “忠과 敬을 잃으면 어떻게 군주를 섬기겠는가?”⁶⁾라고 말한다. 여기서 충은 내면의 진실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주를 섬기는 덕목을 뜻한다. 충군(忠君) 관념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좌전』 <희공 23>년엔 이렇게 말한다. “자식이 성장하여 벼슬길에 들어섬은 부모가 충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으로 이는 옛날의 예법제도이다.”⁷⁾ 충은 자발적 의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군주에게 충성하도록 가르쳐졌다는 얘기다. 『좌전』과 『국어』 등 춘추시대 문헌에는 신하의 충을 요구하고

1) 『古文字詁林』 8권(古文字詁林出版委員會 2004, 957)에 마서륜(馬叙倫)의 이와 같은 주장을 실고 있다.

2) 爾尙蓋前人之愆, 惟忠惟孝.

3) 所謂道, 忠於民而信於神也.

4) 『左傳』 <襄公 22年>에는 “君人執信, 臣人執共, 忠信篤敬, 上下同之, 天之道也”라고 한다. 내면의 진심을 다하여 ‘信’을 수립하는 개념으로서 ‘忠’이다.

5) 事君以敬, 事父以孝.

6) 失忠與敬, 何以事君?

7) 子之能仕, 父教之忠, 古之制也.

그것을 애써 찬양하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좌전』 <회공 9년>에는 주군과 주군의 집안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忠)과 정(貞)을 다한’ 순식(荀息)을 충의 모범으로 찬양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군주국가에서 군주, 국가, 사직은 같은 존재이므로 충군의 범주는 이들을 포괄한다. 『좌전』 <양공 14년>에 “죽음에 이르러 사직을 보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를 어찌 충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이란 백성들의 소망이다”⁸⁾라고 한다.

공자는 충의 정치적 작용을 강조하였다.

계강자가 물었다. “백성들을 敬과 忠으로 권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백성들을 대함에 행동거지를 단정하고 장중하게 하면 敬하게 될 것이며, 효도하고 자애롭게 하면 忠하게 될 것이며, 잘난 사람을 천거하고 못 미친 사람을 잘 가르치면 근면하게 될 것입니다.”⁹⁾

권면은 일종의 강요이다. 『논어』에서 충은 내면의 성실함이기도 하고 군주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다. <학이(學而)>편에서 증자가 “다른 사람과 일을 하면서 忠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¹⁰⁾라고 말할 때의 충은 내면의 진실한 마음이고, <팔일(八佾)>편에서 “군주가 신하를 예(禮)로 부리면, 신하는 군주를 忠으로 섬긴다”¹¹⁾라고 할 때는 군주에 대한 충성의 의미이다.

충군 관념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종의 강요된 복종으로부터 자발적 의지로 전환된 계기는 불충(不忠) 관념의 확산 및 그것을 죄악시하는 사회 통념의 성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주와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풍토는 종법이 지배한 은주시대부터 있어 왔으며 약간의 시차를 두고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사회윤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군주의 일에 협조하지 않음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불효처럼 사람답지 못한 행위로 취급되었다. 『좌전』 <민공(閔公) 2년>엔 “명을 위반하는 것은 不

8) 將死, 不忘衛社稷, 可不謂忠乎? 忠, 民之望也.

9) 季康子問: 「使民敬, 忠以勸, 如之何?」 子曰: 「臨之以莊則敬, 孝慈則忠, 舉善而教不能, 則勸。」(『論語』 <爲政>).

10) 爲人謀而不忠乎?

11)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孝이고 일을 저버리는 것은 不忠이다”¹²⁾라고 말한다. 춘추시대 문헌에는 나쁜 행위로서 ‘불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신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군주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며 그렇게 죽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로 포장되었다.

봉건과 종법을 벗어나 중앙집권적 군주전제가 강화된 전국시대의 제자백가에 이르면 불충을 죄악시하는 풍조를 넘어서 자발적 의지로서 충을 애기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한다. 전국시대 부국강병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군주는 유능한 인재를 구하고 각종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유세를 하였다. 자신의 부모와 종족과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 군주에게서 자리를 구하고 충을 바치는 ‘자발적 충군’이 세상의 분위기가 되었다. 이것이 종족본위에서 국가본위, 즉 종통(宗統)에서 군통(君統)을 향해 나아간 변법 운동의 결과라는 주장(楊華 1997, 94)도 있으나 그보다는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 천하에 대한 내적 성실로서 충의 가치가 의미 확장된” 데다가 충과 효, 불충과 불효가 하나의 관념으로 뒤섞이며 사회윤리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제자들의 논의에서 그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목자는 “신하와 자식이 임금과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음이 이른바 난(亂)이다”¹³⁾라고 말하고, “군신상하의 은혜와 忠, 부모형제의 자애와 孝”¹⁴⁾를 강조한다. 목자는 충과 효를 상보적 관계로 본 것이다. 맹자는 여러 곳에서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수신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와 같은 시대인 『상군서(商君書)』 <거강(去疆)>편엔 “국가에서 시서(詩書), 예악(禮樂), 효제(孝弟), 훌륭한 수신 따위를 적용해 다스리면 적이 오면 반드시 나라가 깰 것이고 오지 않아도 반드시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다”¹⁵⁾라고 말한다. 상양(商鞅)은 예나 효 대신에 충군을 사회 관념의 기초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육친이 불화하니 孝와 자애가 있는 것이다.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忠臣)이 있는 것이다”¹⁶⁾라고 말하며 충신과 국가를 연결시키고 있다.

충군 관념은 제자백가를 집대성한 순자에 이르러 이론화, 세분화하였으

12) 違命不孝, 棄事不忠.

13) 臣子之不孝君父, 所謂亂也(『墨子』 <兼愛(上)>).

14) 君臣上下惠忠, 父子兄弟慈孝(『墨子』 <天志(中)>).

15) 國用詩書禮樂孝弟善修治者, 敵至必削國, 不至必貧國.

16) 大道廢, 有仁義, 智慧出, 有大僞. 六親不和, 有孝慈. 國家昏亂, 有忠臣(『道德經』 18章).

며 집대성되었다. 수신의 일환으로서 충과 신(信)을 동일선상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점에서 순자는 공자, 맹자의 논의를 이어받고 있다. 『순자(荀子)』의 <영욕(榮辱)>편에는 “신(信)으로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라고, 忠으로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친근하게 대하길 바란다”¹⁷⁾라고 말한다. <치사(致士)>편에서는 ‘간언(姦言), 간설(姦說), 간사(姦事), 간모(姦謀), 간예(姦譽), 간소(姦愬)’의 반대 개념으로 ‘충언(忠言), 충설(忠說), 충사(忠事), 충모(忠謀), 충예(忠譽), 충소(忠愬)’를 말한다. <신도(臣道)>편은 이렇게 말한다.

“덕으로 군주를 감싸 모든 것이 잘 하게 하는 것이 大忠이다. 덕으로 군주를 조율하여 잘 보필하는 것이 그 다음 忠이다. 옳다는 자기 입장에 서서 그릇된 것을 간언하여 군주를 노엽게 만드는 것은 하급의 忠이다.”¹⁸⁾

그 외에도 순자는 <신도>편에서 충이 무조건적 충성이나 아부가 아니며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군주를 이롭게 하는 신하를 가리켜 忠이라 한다”¹⁹⁾라고 말한다. 순자는 현실의 군주를 존중하는 존군(尊君)론자이지만 무조건적으로 군주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중도불종군(從道不從君)(<신도>편/<자도(子道)>편), 즉 도를 군주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킨다. 그의 제자 한비(韓非)가 효를 충 관념보다 하위에 두면서 군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단명한 진(秦)나라와 더불어 사라졌다. 유학이 지배 이념이었던 한당(漢唐) 이래 후대의 충군 관념은 기본적으로 순자적이다. 동중서(董仲舒)는 『춘추번로(春秋繁露)』 <천지지행(天地之行)>편에서 “몸을 굽혀 목숨을 바치고 섬김에 전제(專制)가 없어야 忠이 된다”²⁰⁾라고 말하고 후한 때 성립한 『충경(忠經)』엔 “충이란 그 마음을 하나로 함을 말한다”²¹⁾라고 한다. 군주에게 충성을 해야 하지만 군주보다 높은 곳에 존

17) 信矣, 而亦欲人之信己也; 忠矣, 而亦欲人之親己也.

18) 以德[復]覆君而化之, 大忠也; 以德調君而[補]輔之, 次忠也; 以是諫非而怒之, 下忠也.

19) 從命而利君謂之順, 從命而不利君謂之諂; 逆命而利君謂之忠, 逆命而不利君謂之篡.

20) 委身致命, 事無專制, 所以爲忠也.

21) 忠也者, 一其心之謂矣(<天地神明章>).

재하는 다른 권위를 생각하는 충군의식이다. 지극히 추상적인 이것은 도(道)일 수 있고, 천(天)일 수 있고, 태허(太虛)²²⁾일 수 있고, 리(理)일 수 있다.

충군 관념은 한대에 와서 ‘군위신강(君爲臣綱)’으로 대표되는 삼강(三綱)설의 확립과 유행으로 정형화되었다(曾廣開 2013). 그리고 진짜 충군은 순자가 말한 대충(大忠)²³⁾ 즉 도의에 입각해 군주를 바로잡아 치세를 이룸을 말한다. 한대 문헌인 『한시외전(韓詩外傳)』 권4에 “도로써 군주를 넘어뜨려 교화시키는 것을 大忠이라 부른다”²⁴⁾라고 할 때의 그 충이다. 그 방법은 간언뿐이다. 『충경』 <충간(忠諫)>장엔 이렇게 말한다.

“어긋나도 간하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간할 때는 처음엔 순한 말로, 중간엔 항의로, 마지막엔 죽음의 절개로 한다.”²⁵⁾

한당 이래 문헌들엔 이런 주장이 무시로 등장한다. 그런데 충이 더 이상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죽음마저 자발적 의지라고 할 수 있는가? 수, 당, 송, 원, 명 제국의 황제들은 하나같이 신하들에게 죽음으로 충성을 다하라고 강조하였다. 그 논리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부모와 군주를 같은 존재로 보아 충효의 일체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효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논리를 군주에게도 적용한다. 당 태종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부자와 같다”²⁶⁾라고 말하고, 측천무후(則天武后)는 “제 아버지를 존중하려면 반드시 먼저 군주를 존중해야 한다. … 옛날의 충신의 제 군주를 앞에 두었고 제 아버지를 뒤에 두었다”²⁷⁾고 말한다. 둘째 논리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논리를 확장하여 공을 위해 사를 희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2) ‘대허(太虛)’라고도 부른다. 『장자(莊子)』 <지북유(知北遊)>편에 등장하며, 송대 장재(張載)의 『정몽(正蒙)』 <태화(太和)>편 등에도 나온다. 주돈이(周敦頤)의 ‘태극(太極)’도 비슷한 의미로 모두 ‘도(道)’를 뜻한다.

23) 劉澤華(1996a, 166)의 글에는 이와 관련해 충을 전일(專一), 무역(無逆), 대충(大忠) 세 경지로 나누고 있다. 전일의 충은 일종의 절대적 충성이며, 무역의 충은 거역하지 않고 떠나는 일종의 특수한 충군의 도이고, 대충의 충은 충군 방법 중의 정수로 중도불충군(從道不從君)의 유가의 이상적인 정치원칙이라고 한다.

24) 以道覆君而化之，是謂大忠也。

25) 違而不諫則非忠臣。夫諫，始於順辭，中於抗議，終於死節。

26) 君之於臣，猶父子也(『資治通鑒』卷194)。

27) 欲尊其親，必先尊於君；… 古之忠臣，先其君而後其親(『臣軌』 <至忠>)。

충군이야말로 공적 이익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니 사적인 목숨 따위는 군주(국가, 사직)를 위해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논리 모두 심리적 구속력을 지니며 사람들의 도덕적 심성을 옥죄는 역할을 하였다.

수당 이래 불교 또한 충군 관념에 간헐했다. 특히 당대 불교는 제왕에 대한 존중을 부처에 대한 숭배보다 위에 두었다. 현장(玄奘) 같은 고승도 제왕이 “전륜성왕의 존엄으로 법왕의 교화를 펼친다”²⁸⁾고 칭송할 정도였다. “중국 불교의 도덕은 효친충군을 강조하고 장유유서와 적서구분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특징은 무군과 무부, 평등과 이타를 주장하는 인도불교의 도덕과 비교할 때 더 이상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劉澤華 1996b, 120).

성리학자들은 본원적인 덕목으로 효를 강조하지만 인위적인 관계로서 충 또한 대단히 중시하였다. 주자는 이렇게 말한다.

“충이란 실심으로, 인륜의 일용사에서 모두 마땅히 이를 쓰는데, 왜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만 홀로 충자를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주자는 ‘부자, 형제, 부부는 모두 천리자연이라서 사람이 모두 스스로 애경할 줄을 모르는 바가 없다. 군신도 또한 천리라고 하지만 의리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곧바로 쉽게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충이라고 딱 지목해서 말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²⁹⁾

성리학자들은 단순히 군주를 섬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진기(盡己)’, 즉 자기를 다하는 대충을 생각하였다.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성리학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특히 충효를 강조했다. “성현의 가르침이 세 가지 있다. 하늘을 공경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어버이에 효도하는 것이다”³⁰⁾라는 태조의 말은 명나라의 법이자 원칙이 되었다. ‘경천(敬天)’과 ‘충군(忠君)’과 ‘효친(孝親)’은 명나라 최대의 강령이었고 동림당인의 충군의 정치심리는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이루어졌다.

28) 以輪王之尊, 布法王之化(『全唐文』卷906 <請入少林寺翻譯表>).

29) 用之問: 「忠, 只是實心, 人倫日用皆當用之, 何獨只於事君上說『忠』字?」曰: 「父子兄弟夫婦, 皆是天理自然, 人皆莫不自知愛敬. 君臣雖亦是天理, 然是義合. 世之人便自易得苟且, 故須於此說『忠』, 卻是就不足處說。」

30) 聖賢之教有三: 曰敬天, 曰忠君, 曰孝親(『明史』<吳沉傳>).

Ⅲ. 동림당인(東林黨人)의 충군심리: 존군(尊君)인가 한군(限君)인가?

1. 동림당(東林黨)의 탄생과 좌절

명(明)은 처음부터 특무기관을 움직이는 황제 중심의 강한 독재국가였다. 강남 개발에 따라 인구와 부가 늘어났음에도 독재의 후유증은 심각해서 명 후반부터는 부패의 극단을 달렸다. 특히 환관과 이부(吏部)에 집중된 인사권 때문에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였다. 16세기 말엔 전국 최대의 곡물 생산지역인 강절(江浙)지역에 “토지를 가진 자가 10명 가운데 1명에 지나지 않고, 지주의 소작인으로 된 자는 10명 가운데 9명이 나 될”(오금성 외 2008, 98) 정도였다. 환관들의 부패가 극에 달하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면서 각종 정치주장을 하는 집단이 생겨났고 스스로를 ‘당(黨)’이라 불렀다.³¹⁾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조직을 갖추어 민심을 반영하는 오늘날의 정당과는 달랐지만 중대한 정치적 현안을 두고 치열한 암투와 쟁송을 벌이곤 했다. 그 가운데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대표적인 집단이 동림당(東林黨)이다.

명 신종(神宗) 만력(萬曆) 시기 ‘국본(國本)’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황제의 뜻을 어겨 관직을 잃은 고헌성(顧憲成, 1550-1612년)은 고향인 강소(江蘇)성 무석(無錫)으로 내려가 동생 윤성(允成), 동지 고반룡(高攀龍) 등과 함께 지방관의 도움을 받아 황폐해진 옛 건물인 동림(東林)서원³²⁾을 수복하고 강학활동을 하였다. 1594년 <동림회약(東林會約)>을 제정하고 동림대회를 소집하여 천하의 지식인들을 초청하였다. 산림에 은거하여 수선에 열중하던 재야인사와 관직에서 파면된 사람들이 서원 숙소가 모자랄 정도로 몰려들어(『명사(明史)』 <고헌성전(顧憲成傳)>) 중앙정부 내각대신 및 환관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동림은 당이 아니라 학술단체라는 주장(樊

31) 문헌에 등장하는 이름을 보면 절당(浙黨), 제당(齊黨), 초당(楚黨), 곤당(崑黨), 선당(宣黨) 등 아주 많았다.

32) 송대 성리학자 구산(龜山) 양시(楊時)가 강학하던 장소로 무석(無錫)의 성 밖에 있었는데 황폐해져서 승려들이 객사로 이용하고 있었다.

樹志 2001)도 있지만 강학 외 정기학술대회는 언제나 정치와 정책에 대해 담론하였으며 조정을 풍자하고 여론을 이끈 사대부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학술단체로만 보기는 어렵다.³³⁾

동림당인은 명 희종(熹宗) 천계(天啓) 5년(1625) 환관 위충현(魏忠賢) 일파와의 정치투쟁에서 패배해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동북지방에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하며 중원을 넘보던 위험한 시기인 천계 초기에 동림당 출신들이 한때 중앙정부를 장악하기도 했으나 음란유모 객과파(客巴巴)와 닷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위충현의 공격에 패배하였다. 고반룡은 초나라 굴원(屈原)처럼 ‘충심’을 안고 강물에 투신하였고 양련(楊漣), 위대중(魏大中), 좌광두(左光斗), 주조서(周朝瑞), 원화중(袁化中), 고대장(顧大章) 등 ‘육군자(六君子)’는 뇌물수수라는 억울하고 더러운 죄명으로 엮여져 감옥에서 쇠못으로 귀가 뚫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아 죽었다. 그들은 원통하게 죽으면서도 ‘충심보국(忠心報國)’을 외쳤다.

동림당인은 기본적으로 명대 학문의 기본 흐름인 성리학의 계승자들이다. 『명사』 <고헌성전>에 따르면 그는 “무선무악의 심이 본체”라는 왕수인의 주장을 힘써 나무랐다.³⁴⁾ 하지만 다른 저술에서 그는 주자학과 양명학 둘 다 공자 사상의 일부분을 계승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한다.

“공자의 분신으로 하나이면서 둘이다. 수신을 통해 깨침으로 나아감은 실(實)을 잘 활용한 것으로 그 맥락은 천하의 지성(至誠)으로 통한다. 깨침을 통해 수신으로 나아감은 허(虛)를 잘 활용한 것으로 그 맥락은 천하의 지성(至聖)으로 통한다.”³⁵⁾

고헌성은 주자와 양명이 같음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같음이 있다고 생각한 지점은 ‘수신’이다. 두 길이 다르지만 수신과 깨침이란 유학 본래의 목적은 일치한다는 것이다. 유학자들이 수신하고 깨치려는 것은

33) 『明史』 <顧憲成傳>에 따르면 “由是東林名大著，而忌者亦多”라고 한다. 동림의 정치적 명성이 커짐에 따라 꺼리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은 사회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이들을 정치집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34) 力辟王守仁‘無善無惡心之體’之說.

35) 孔子之分身也，一而二者也。由修入悟。善用實，其脈通於天下之至誠；由悟入修，善用虛，其脈通於天下之至聖(『涇臯藏稿』卷11).

궁극적인 도(道)이다. 독립당인들의 충군(忠君)의식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2. 우국우민, 순도(殉道), 계구(戒懼)의 심리

전통적인 유가사상을 계승하고 명초의 충군 관념에 충실했던 독립당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심리는 첫째 지식인으로써 나라와 백성의 앞날을 미리 걱정하고 대비하는 우국우민의 사회적 책임감이고, 둘째 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순도(殉道)의 정신이고, 셋째 국가사회가 위기에 빠져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군주에 대해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움을 갖는 계구(戒懼)의 심리로 종합할 수 있다.

권력의 타락과 지방행정의 부패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독립당인의 정치투쟁은 그들의 피와 살을 구성하는 유가사상적 성향이 충군 관념과 합하여 만들어놓은 심리적 소산이었다. 그 유가사상은 기본적으로 도에 대한 존중, 즉 존도(尊道)와 군주에 대한 존중, 즉 존군(尊君)을 양 날개로 한다. 성리학에선 도문학(道問學) 즉 학문수양을 통하거나, 존덕성(尊德性) 즉 덕성함양을 통해서 존도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 도의 내용은 인(仁)일 수도 있고 의(義)일 수도 있고 예(禮)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실천이란 측면에서 독립당인은 공통적으로 존군(尊君)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고반룡은 이렇게 말한다.

“어느 한 가지 생각도 군부(君父)에게 기울지 않은 적이 없었고, 어느 한 가지 일도 세상을 위한 예방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³⁶⁾

조남성(趙南星)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황상은 하늘의 자식이며, 만방 백성은 모두 황상의 자식이다. 자식만이 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으며 부모만이 자식을 거느릴 수 있다”³⁷⁾라며 군부(君父)일체를 주장한다. 독립당인은 심리적으로 군권의 지상성(至上性)을 적극적으로 숭상하였으며 주재자로서 군주의 권위를 당연한 이치로 인정하였다. 제왕은 머리다. 이응승(李應

36) 無一念不於君父傾注, 無一事不思於世路堤防(『高子遺書』卷5).

37) 皇上爲天之子, 萬邦黎民皆皇上之子. 惟子爲能感父, 惟父爲能率子(『趙忠毅公文集』卷12).

升)은 “황상은 원수(元首)이며 신하들은 그의 복심이거나 수족이다”³⁸⁾라고 말한다. 군주의 의지와 정신은 지극히 존엄하여 천하는 그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도의를 지키고 민생을 두려움에서 구하고 우국우민하는 근본은 제왕에게 있다는 주장은 유가사상에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논어(論語)』 <자로(子路)>편을 보면 “한 마디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런 말이 있느냐?”고 노 정공(魯定公)이 묻자 공자는 “군주 노릇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거의 한 마디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답하고, “한 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런 말이 있느냐?”고 묻자 “군주의 말이 옳지 않음에도 아무도 그것을 어기지 못한다면 거의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³⁹⁾ 군주 개인의 의지와 행위, 간언을 대하는 군주의 상대적 책임의식 등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는 논의는 유가사상의 오래된 주장이다. 동림당인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응승은 “황상의 일심은 특히 천심과 인심의 근본이다”⁴⁰⁾라고 말한다. 제왕은 몸의 두뇌 같은 존재이므로 수족인 신민은 그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충군의 실체이지만 유가사상은 군주 개인의 의지와 말 위에 방국의 흥망을 결정짓는 선(善)과 정(正)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정치적 위기와 관념의 위기는 동일한 것이며 그 정점에 군주가 있지만 그보다 높은 곳에 군주를 바르게 만들어야 하는 대충(大忠)의 관념이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유가의 우국우민의식은 일종의 의무이자 책임인 동시에 사대부들의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자각이었으며 우국(憂國), 우민(憂民), 우군(憂君)으로 연결되는 충군 관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呂紅梅 2007). 동림당인이 정치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의식은 이것이었다. 그들은 일념으로 우군했으며, 군주가 일심으로 우국하기를 희망하였다. 고헌성은 “선비들 가운데 뜻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으로 적극적인 구세의지가 없는

38) 皇上元首也, 臣子其腹心手足也(『落落齋遺集』 卷1).

39) 定公問: 「一言而可以興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爲君難, 爲臣不易.』 如知爲君之難也, 不幾乎一言而興邦乎?」 曰: 「一言而喪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予無樂乎爲君, 唯其言而莫予違也.』 如其善而莫之違也, 不亦善乎? 如不善而莫之違也, 不幾乎一言而喪邦乎?」

40) 皇上一心, 尤天心人心之本(『落落齋遺集』 卷1).

경우는 없다”⁴¹⁾는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고, 조남성은 “일념이 바르면 귀신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일념이 그릇되면 재앙이 끝이 없다”⁴²⁾라고 말한다. 동림당인은 그 ‘그릇됨’을 간신들 때문이며 그들을 임용한 군주의 생각과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군주의 일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간신들과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이는 사실상 ‘옳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군권을 제한하는 일이다.

동림당인은 존군을 전제하면서도 한군(限君), 즉 군권을 제한하는 이중적 심리를 가졌던 셈이다. 고현성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군주가 여론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위에서 막히고 아래에서 막히는 소통의 부재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재난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에서 막히면 위가 외롭고 위에서 막히면 아래가 외롭다. 이 둘 모두 대란에 이르는 길이다”⁴³⁾라고 말한다. 신하는 적극적으로 간언을 올리고 군주는 적극적으로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의 핵심이다. 사적인 욕구를 배제하고 군주가 허심으로 신하들의 간언을 받아들일 때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게 된다”⁴⁴⁾라고 말한다.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 태도는 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동림당인 순도(殉道)의 심리와 연결된다. 그들은 존군을 전제하면서도 군주 위에 또 다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군주 밖에 어떤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곧 한군(限君)이다. 동림당인의 용어에는 ‘조종(祖宗)’, ‘성조(聖祖)’, ‘도’, ‘왕도’ 등이라 불리는 것들이 자주 등장한다. 양련(楊漣)은 이렇게 말한다.

“천하는 조종의 천하이다. 법도는 조종의 법도이다. 황상 또한 조종과 법도 가운데 있으니 사사로이 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사로이 한 사람에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⁴⁵⁾

41) 士之號爲有志者，未有不亟亟於救世者也(『涇臯藏稿』卷8).

42) 一念之正，鬼神畏敬；一念之邪，其禍无涯(『趙忠毅公文集』卷11).

43) 壅在下則上孤，壅在上則下孤，之二者，皆大亂之道也(『涇臯藏稿』卷7).

44) 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涇臯藏稿』卷1).

45) 夫天下者，祖宗之天下；法度者，祖宗之法度也。皇上亦在祖宗法度之中，卽欲私喜一人，私怒一人，不可得(『楊忠烈公文集』卷1).

고헌성도 “황상은 성조를 법으로 삼아야 한다”(『경고장고(涇臯藏稿)』 권1)라고 말한다. 도를 가지고 군권을 통제해보려는 생각은 전통적 유가사상에서 보인 종도불종군(從道不從君) 또는 도고어군(道高於君)의 연속이다. 존군을 하지만 군주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둔 복종을 한다는 뜻이다. 동림당인의 이러한 한군의 심리가 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부른 것이며 동시에 정치적 패배에도 곳곳이 죽음을 맞이한 요인일 것이다.

한편 그들 사이에도 자신들의 도덕적 위기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계구(戒懼)의 심리가 존재했으며 이는 정치투쟁을 전후한 여러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동림당인 대부분의 저작엔 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을 단속하여 형체와 외부환경을 넘어서서 도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전통 유가사상의 ‘신독(慎獨)’을 강조한다. 신독의 심리적 특징은 계구(戒懼)이며 동림당인은 ‘계구’, ‘공구(恐懼)’, ‘계신(戒慎)’ 등 용어를 사용하는데, 고헌성은 다 같은 말이라고 하며 계구는 도덕수양의 보편적 상태를 뜻하며 그 핵심은 신독에 있다고 말한다.⁴⁶⁾ 이렇게 절대적인 도덕수양을 통해 그들은 한편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과감한 정치적 선택을 하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원죄의식을 가지게 된다(葛荃 2003, 27-29). 지식인으로서 동림당인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도덕적 요구를 하였지만 결국 군주와 직접 충돌하게 되면 존군의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피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결국 한군의 논리가 존군의 논리 앞에 무너지는 것이다. 동림당인 가운데 과감히 맞서 살신성인한 사람도 많으나 정치를 피해 문을 걸어 잠근 사람도 많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3. 존군과 한군: 자발적 복종의 한계

존군과 한군 사이, 즉 군권의 지고무상을 인정하면서도 군권을 제약하고자 했던 동림당인의 모순된 정치투쟁은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46) 신독(慎獨)과 계구(戒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葛荃(2003, 24-29)의 글에 매우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도를 높은 곳에 두고 이것으로 군권을 제한하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는 군권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황제는 군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제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계구’의 심리를 갖고 있으면서 ‘순도’의 정신이 강한 일부 동립당인은 간혹 지나치게 격렬한 언사로 군주를 비판하였다. 공자는 군주의 안색을 살피고 간언하라고 충고하고(『논어(論語)』 <계씨(季氏)>), 순자 또한 비유를 들어가며 완곡하게 간언하라고(『순자(荀子)』 <비상(非相)>) 가르쳤는데도 동립당인은 오히려 “바른 말을 과격하게 하지 않으면 군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⁴⁷⁾고 강하고 당당하게 말하였다. 군주와 충신 사이의 비밀스런 왕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마땅히 천하와 더불어 공적으로 말해야 한다”(『명사(明史)』 <전일본전(錢一本傳)>)라고 주장하였다. 군주의 지고무상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주의 개인 행위를 일탈로 보는 발상이어서 군주의 반발을 초래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동립당인은 여론을 통제하여 정부를 좌우하려고 했다. “정사(政事)는 6부에 돌려주고 공론(公論)은 언관에게 주어야 한다”⁴⁸⁾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정치체제를 설계하기도 했다. 제도를 바꾸고 권력을 나누라는 이런 요구는 확실히 황제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질 수 있다. 존군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도 ‘도를 통해 군주를 바로잡는다’는 순도(殉道)의 심리는 군주에게 더욱 큰 스트레스를 준다. 여론을 통해 정부와 군주를 통제하려는 이 아름다운 발상은 신선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황제가 보기에 무척 곱끄러웠을 것이다. 고현성은 “시비란 천하의 시비이니 당연히 천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⁴⁹⁾라고 말하며 시비판단의 준거마저 건드리려고 하였다. 사천하(私天下), 가천하(家天下)의 시대에 존군의 의미는 곧 군주를 모든 신민의 궁극적 가치판단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군주와 시비논쟁을 하는 것은 ‘한군’을 넘어서 군주와 겨루자는 의미다. 여기서 동립당인은 자발적 복종이라는 충군의 기본 이념을 넘어서고 있다. 군주는 파면과 형벌로 응수하였고 동립당인은 결국 재앙을 맞게 되었다.

그럼에도 동립당인은 군주에 대한 자발적 복종으로서 존군의 태도를 조

47) 正謂不激切不足以動人主之心(『黃忠端公集』卷1).

48) 政事歸六部, 公論付言官(『明史』<史孟麟傳>).

49) 是非者, 天下之是非, 自當聽天下(『顧端文公年譜』下).

금도 바꾸지 않았다. 명나라 초기 주원장이 의례와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경천(敬天)과 충군(忠君)과 효친(孝親)”(『명사』 <오침전(吳沉傳)>)을 선언하고 삼강오륜과 수신 및 충효를 강조한 이래 명대 지식인들은 줄곧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의 원리원칙으로 생각하였다. 명말 극심한 정치부패와 타락한 사회에 살면서도 동림당인은 이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오히려 이 원칙으로 타락한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천, 충군, 효친은 ‘天’, ‘君’, ‘親’이란 상위 등급이 존재하고 그 아래 모든 사람은 거기에 복종함을 올바른 명분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군주를 하늘이나 아버지와의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등급과 명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명대 충군의 실상이다. 그 방법은 경(敬)과 충(忠)과 효(孝)였다.

동림당인이 구상한 정치 및 사회질서 회복의 관건은 곧 예의도덕의 회복이었고, 예의도덕을 회복하려면 곧 경, 충, 효가 사회가치의 기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림당인의 충군심리가 경, 충, 효를 준군이라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예의도덕은 군신 간 등급과 명분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 충, 효는 군신 간 기상을 바로잡고 군신 간 등급질서를 회복하여 사회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동림당인은 효를 충군의 길목에 존재하는 덕목으로 본다. 조남성은 “집안에 들어오면 효성스런 자식이자 우애 있는 형제가 되고 나가면 신뢰를 갖춘 벗이 되고 벼슬길에 나가면 충신과 어진 관리가 된다”⁵⁰⁾라고 말한다. 자신이 부모만 봉양하고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을 사회문제의 출발로 여기기도 했다. 고반룡은 “효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군주를 섬기는 과정으로 간다”⁵¹⁾라고 이해하였다. 조남성은 이렇게 말한다.

“천하는 모두 자식이며 모두 아버지에게 효도하고자 한다면 모두 군주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천하의 모두가 충과 효를 다하면 윤상의 질서가 수립된다. 나라 안이 함께 효도하니 충은 그 가운데 있게 된다.”⁵²⁾

50) 入則爲孝子悌弟，出則爲信友，仕則爲忠臣良吏(『趙忠毅公文集』卷1).

51) 夫孝始於事親，中於事君(『高子遺書』卷1).

52) 天下皆子也，皆欲孝其親乎，則皆思忠其上。天下而皆忠孝，則倫常叙矣，海內同孝，忠在其中矣(『趙忠毅公文集』卷3).

동립당인은 충과 효의 통일을 기도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내 생명을 주고 키워주셨으며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부모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군주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다. 부모에 대한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함에 감히 군주를 잊지 않으며 내가 한 번 마시고 한 번 씹고 한 번 눕고 한 번 일어나는데 모두 군주의 은혜를 생각한다”⁵³⁾는 고반룡의 주장은 그래서 자발적이기 어렵다. 동립당인도 “충효의 도를 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도나도 얘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사람 모두가 자발적으로 충군하기 어렵다는 것은 유가사상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존군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동립당인은 유학을 중흥시킴으로써 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였다. 동립서원이 천하에 명성을 떨친 것은 집회, 강습, 결사를 통해 유학의 가치를 크게 고양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비가 공부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짓는 것과 같다”⁵⁴⁾라면서 동립에 모여든 ‘동지(同志)’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오륜 중에서도 ‘붕우유신’을 가장 중시하였다. 세상만사 가운데 “위로는 군주나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가운데로 형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아래로 처자식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오직 붕우사이만이 여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다. … 붕우가 아니면 군신, 부자, 부부, 형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⁵⁵⁾라고 말한다. 학문과 도의로 맺어지는 동지야말로 동립당인 우국우민, 순도, 계구의 정치심리를 잘 반영한 말이다. 물론 동립당인은 이것도 존군과 연결한다.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라는 가족관계를 군신유의라는 사회정치적 관계와 연결시키는 중간고리로서 붕우유신을 강조한 것이다.

“군신 간은 서로 공경으로 이기고 부자, 부부, 형제 사이는 서로 사랑으로 이긴다. 이기면 치우치고 치우치면 폐단이 생긴다. 반드시 붕우의 도로써 그 가운데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비로소 구제할 수 있다.”⁵⁶⁾

53) 學念而不敢忘其君, 念吾之一飲一啄一臥一起者, 皆君恩也(『高子遺書』 卷1).

54) 夫士之於學, 猶農之於耕(『東林書院志』 卷2).

55) 上不可言於君親, 中不可言於兄弟, 下不可言於妻子, 而獨可從容擬議於朋友者, …非朋友無以成其君臣父子夫婦兄弟(『東林書院志』 卷3).

56) 君臣之相與也以敬勝, 父子夫婦兄弟之相與也以愛勝. 勝則偏, 偏則弊. 亦必以朋友之道爲主調變於其間, 乃克有濟(『東林書院志』 卷3).

유학을 본업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도의로 결사하고 강습하여 한 동네가 선(善)으로 수렴되고 이어 나라가 선으로 수렴되고 “천하의 선사(善士)들이 집단을 이루어 강습하면 곧 천하의 훌륭한 것이 모두 수렴되어 나의 훌륭한 것이 될 것이며 그 정신이 천하에 충만해질 것이다”⁵⁷⁾라고 한다. 자발적 의지에 따른 충군의 논리를 동지에서 구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당 내에선 동지가 될 수 있으나 권력투쟁의 정치 현장에서 동지들의 자발적 복종에 의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발상은 좀 순진하다. 그들이 권모술수의 달인인 위충현에게 처참하게 당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동림당인은 준군과 한군의 언저리에서 자발적 복종에 기대는 한계를 드러내긴 했지만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고, 수신과 신독을 강조하고, 하학상달의 뜻을 분명히 한 점에서 가장 진지한 유생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성리학자답게 도심(道心)으로 인심(人心)을 통제하려 하였으며 마음으로 도를 전수한다는 ‘심전(心傳)’의 이상을 견지하였다. 고현성은 “이 욕망은 사람이 태어나 땅에 떨어지면서 함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온갖 병은 모두 여기서 시작된다”⁵⁸⁾라고 생각하였다. 일심으로 선을 지향하고 욕망을 제거하여 성현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선을 지향하는 사회였다. 공자, 맹자, 순자로부터 2천 년이 지났으나 역시 공맹순이 주장하던 왕도사회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애석하게도 절대 군권의 시대에 살았던 그들은 군주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그저 황은에 감사하며 사는 순민(順民)사회를 건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그토록 미워하는 소인들에게 혹독하게 당하고 말았다. “군주가 신하를 개나 말로 보면 신하는 군주를 국인(國人)처럼 여기고, 군주가 신하를 쓰레기로 보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처럼 여긴다”⁵⁹⁾는 맹자의 상대적 군신론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였다면 문제의 본질이 군주제도에 있다는 것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

57) 群一鄉之善士講習，卽一鄉之善皆收而爲吾之善，而精神充滿乎一鄉矣。群一國之善士講習，卽一國之善皆收而爲吾之善，而精神充滿乎一國矣。群天下之善士講習，卽天下之善皆收而爲吾之善，而精神充滿乎天下矣(『東林書院志』卷3).

58) 這個欲自人生落地時便一齊帶下，千病萬病皆從此起。我要爲善，這個却出來做個對頭，不愁你不屈伏。我不肯爲惡，這個却出來做個牽頭，不愁你不依順。

59) 君之視臣如犬馬，則臣視君如國人；君之視臣如土芥，則臣視君如寇讎(『孟子』〈離婁下〉).

IV. 결론

순자의 종도불종군(從道不從君) 주장에서 보듯이 유가사상을 정치이념으로 받은 중국 전통 왕조 하의 지식인들은 도를 군주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켰고 도의에 입각해서 군주를 섬기는 것을 대충(大忠)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상대적 군신관계는 진한 제국 이래 절대적 군신관계가 되면서 충효의 일체화와 선공후사의 논리는 자발적 충군심리를 강화하였다. 주자학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발적인 진기(盡己)의 충을 강조하고 주원장은 이를 명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확정하였다.

동림당인은 강렬한 존군의식은 명 왕조 입국의 기본 이념인 경천, 충군, 효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의 심리는 첫째,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우국우민의 정신으로 무장하였다. 전통적인 유가의 구세정신을 이어받아 목숨을 바쳐 나라와 백성을 구하겠다는 의식은 동림당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환관 엄당(閹黨)과의 견결한 투쟁을 이끌었다. 둘째, 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도정신과 군주에게 충성하는 충군심리가 동시에 작용하였다. 삼강오륜이 지켜지는 도덕사회의 회복을 꿈꾸며 부자, 부부, 장유 간 질서를 봉우의 ‘동지(同志)’들이 집회, 강습, 결사를 매개로 하여 군신 간 등급질서, 즉 존군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피와 살이 분리되는 굴욕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몸이 살든 죽든 조정에 맡기고자”⁶⁰ 했다. 셋째, 동림당인은 위기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계구(戒懼)의 심리를 가졌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원죄의식을 가졌으며 ‘신독’이란 절대적 도덕수양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존재로서 자신감을 가졌다. 이 자신감이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며 과감히 살신성인하는 정치투쟁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동림당인은 존군과 한군 사이, 즉 군권의 지고무상을 인정하면서도 군권을 제약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당당하고 과격한 발언은 군주의 반발을 불렀고, 여론을 통제하여 정부를 좌우하려는 시도는 군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졌으며, 경(敬)과 충(忠)과 효(孝)를 일체화시켜 군주에 대한 자발

60) 日前赴速, 不爲張儉之逃亡, 楊震之仰藥, 亦謂雷霆雨露, 莫非天恩. … 欲以身之生死歸之朝廷(『楊忠烈公文集』卷5).

적 복종으로 퇴락한 사회를 구제하려는 ‘순진한(?)’ 시도는 냉혹한 엄당의 공격에 힘없이 무너졌다. 절대군권과 거리를 두지 않고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지 않는 한 한군의 논리는 준군의 논리에 무너지며 자발적 복종은 금방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다.

명대 동림당인은 대부분 청렴결백한 관리들이었고 유가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이었다. 사적인 욕망을 최대한 없애고 오직 국가, 사직, 군주를 위해 공적인 행동을 하였다. 전제군주에게 목불인견의 죽임을 당하면서도 군주에 감사하며 직언하고 간언하였다.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였고 도덕이 구현되는 선한 세상을 만들려는 유가의 정치적 이상을 견지하였으나 이 또한 군주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의 과감성과 목숨을 아끼지 않은 구세의 의지와 그 실패는 명말청초 사상가들이 군주를 직접 겨냥한 정치사상을 표방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종박 (1981). “明代東林黨爭과 그 社會背景.” 『동양사학연구』. 16기, pp. 1-27.
- 오금성 외 (2008).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 장현근 (2010). “군권을 둘러싼 공(公)·공(共)의 갈등과 명(明)·청(淸)정부의 재발견: 장거정(張居正)과 황종희(黃宗羲)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제16집, 2호, pp. 31-55.
- _____ (2015). “중국 고대의 충군(忠君)사상과 충효(忠孝)관념의 정치화.” 『정치사상연구』. 제21집, 2호, pp. 75-97.
- _____ (2016). 『중국의 정치사상: 관념의 변천사』. 한길사.
- 葛 荃 (2001). “論政治思維定勢與東林黨人的困境.” 『天津社會科學』. 6期, pp. 96-100.
- _____ (2003). “戒懼心態與東林黨人的政治悲劇析論.” 『史學集刊』. 1期, pp. 24-29.
- 古文字詁林出版委員會 (2004). 『古文字詁林』.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樊樹志 (2001). “東林非黨論.” 『復旦學報(社會科學版)』. 1期, pp. 56-63.
- 成志芳 (2015). “試論漢代士大夫忠君觀念.” 『文教資料』. 26期, pp. 66-68.
- 楊 華 (1997). “春秋戰國時期‘宗統’與‘君統’的鬭爭 - 兼論我國古代忠孝關係的三個階段.” 『學術月刊』. 5期, pp. 91-97.
- 呂紅梅 (2006). “兩漢時期忠君觀念的泛化.” 『歷史教學』. 6期, pp. 49-53.
- 劉寶樹 (2004). “爲學、議定與救世 - 晚明東林黨人的議政之風及其治學精神.” 『江淮論壇』. 1期, pp. 88-91.
- 劉澤華 主編 (1996a). 『中國政治思想史』(秦漢魏晉南北朝卷).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_____ (1996b). 『中國政治思想史』(隋唐宋元明清卷).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張永剛 (2006). “東林黨的實學思想及政治理念.” 『江淮論壇』. 1期, pp. 128-131.
- 曾廣開 (2013). “忠君觀念在漢代的成熟與定型.” 『漢語言文學研究』. 1期, pp. 86-94.
- 『乾坤正氣集』(顧沉); 『涇臯藏稿』(顧憲成); 『高子遺書』(高攀龍); 『國語』; 『落落齋遺集』(李應升); 『論語』; 『道德經』; 『東林書院志』; 『孟子』; 『明史』; 『墨子』; 『商君書』; 『書經』; 『荀子』; 『臣軌』(武則天); 『楊忠烈公文集』(楊漣); 『資治通鑒』(司馬光); 『莊子』; 『全唐文』; 『正蒙』; 『趙忠毅公文集』(趙南星); 『左傳』; 『春秋繁露』; 『忠經』; 『韓詩外傳』; 『黃忠端公集』(黃尊素).

| 논문투고일 : 2016년 11월 02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11월 21일 |

| 게재확정일 : 2016년 12월 0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4 (2016)

The Idea of Loyalty to the King and Political Mentality of Donglin(東林) Faction Leaders in Ming(明) Era: Forced Obedience or Spontaneous Will?

HyunGuen CHANG

(Dept. of Chinese Studies, Yong In University)

In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 the idea of loyalty to the King had been changed from forced obedience to voluntary will. Historical intelligentsia consider serving the King based on moral principles to be the great loyalty(大忠). Integration of loyalty and filial duty(孝), and the logic of giving priority to public matter over private matter(先公後私) reinforced spontaneous loyalty to the King, Donglin(東林) faction leaders of Ming dynasty possess mentality of spontaneous loyalty of exhausting oneself(盡己). Their behaviors and thoughts were consistent in the logic of veneration of the King's power(尊君論), in that at first, they retained social responsibility and were armed with mentality of worrying about the polity and the people(憂國憂民); secondly, the idea of the sole Dao(殉道) which is giving their lives for Dao(道), and the mentality of loyalty to the King(忠君) which is remaining faithful to the King were applied simultaneously; thirdly, the mentality of vigilance and fear(戒懼) that being vigilant and afraid of crisis was expressed. The Donglin(東林) faction leaders were tried to acknowledge the supremacy of sovereign rights and circumscribe it at the same time, but they were completely defeated by cruel power in reality. Albeit they held the confucian ideal of realization of moral society, the logic of limitation of the King's power(限君) was collapsed by the logic

154 아태연구 제23권 제4호 (2016)

of veneration of the King's power(尊君) and the spontaneous obedience to the King revealed its limit.

- Key words: Loyalty to the King, Donglin(東林) Faction Leaders, Patriotism, Martyrs of Dao(道), Voluntary Obedience